



9일 목포 신외항 기아차 선적장에 수출을 앞둔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기아차 증산으로 신외항 물동량이 늘어나는 등 광주와 전남 서부권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동차·조선업 ‘쌍끌이’…협력업체·상가에 ‘훈풍’

지역 경기 살아난다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공단의 A공장. 토요일이지만 금형기계가 바빠 자동차 부품을 찍어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특근에 맞춰 이 공장도 부품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53만대의 올해 생산목표를 세우면서 협력사들도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이 공장 관계자는 “인력이 원활히 채용되면서 경기가 예년보다 좋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의 B중공업 공장.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제조 협력사인 이 업체는 최근 평소보다 30%가량 밀려든 물량으로 합박웃음을 짓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인근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업 인력 전문소개업체가 내건 ‘인력 구함’ 플래카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공단의 인근 식당가도 평소보다 늘어난 손님으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기아차 증산과 국내 조선업 경기회복으로 광주와 전남 서부권의

기아차, 생산 5만대 늘려·현대삼호중 4조5천억 수주

인근 스포츠센터·백화점·식당·영화관 등 매출 ‘쑹쑹’

지역 경제도 덩달아 꿈틀거리고 있다.

◇광주 기아차 증산 효과=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생산량 역대 2위 규모인 47만9880대를 생산했다. 62만대 증산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는 올해엔 5만대 가량 늘어난 53만대의 생산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엔 총 4만441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1월 생산량으로는 최대생산 기록을 경신했다. 설 연휴가 끼여있어 평년보다 이틀이나 생산 일수가 감소했지만 이뤄낸 성과다.

생산량 증가로 당장 지역 협력사들은 기회를 맞았다. 부품 생산물량은 자동차 생산량만큼 자연스레 늘었다. 소촌공단 등에 몰려있는 기아차 협력사들은 올해 매출실적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물량에 대비해 지난해 공장별로 3~7명의 인력을 미리 채용한 덕분에 고질적인 인력난 대신 꾸준한 공장을 가동할 여력도 생겼다.

소촌공단의 C협력사 관계자는 “협

력은 기아차의 생산 계획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면서도 “기아차가 50만대 넘는 생산목표를 세우자 협력업체들도 어느 때보다 공장에 활기가 넘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및 산단 인근 경기도 서서히 꿈틀대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419명의 신입사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7500명에 이르는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이 됐다. 여기에 공장운영이 주간 1·2조 형식으로 바뀌면서 내일주 등 서구지역 상가들이 호황을 맞았다. 사원들의 여가선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포츠문화센터나 백화점, 식당, 영화관 등은 평일에도 손님이 늘었다. 협력사들이 모인 공단 인근의 식당도 손님이 늘긴 마찬가지.

기아차 광주공장과 가까운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기아차 직원들의 늘어난 소비력도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자동차·조선 경기 변화

	2013 생산량	2014 생산목표
기아자동차	47만9880대	53만대
현대삼호중	30척수주 3조5000억원	42척수주 4조5000억원

◇전남 서부권 경기 품물=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남 서부권의 경기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9일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총 42척을 수주해 매출 4조5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수주물량 30척, 3조5000억원보다 선박 건조는 12척, 매출은 1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의 건조물량이 늘면서 대불산단 등 지역 협력사들도 덩달아 작업물량이 늘었고,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실제, 대불공단의 디에스중공업 등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적인 협력업체 10여 곳은 20~30%가량 작업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이 몰리면서 일자리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는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을 겨냥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 150명가량을 취업시켰다. 또 현대삼호중공업이 직접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에도 현재 60여명의 신규 인력이 취업에 앞서 기술을 배우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건조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지만 영암·목포 등 전남 서부권 지역 상가의 경기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 목포시 하당동 한 일식 업주 오모(여·46)씨는 “지난해까지 공단 경기가 나빠 힘들었는데, 최근 공단 손님들이 늘면서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협력업체들의 일감도 증가했지만 전남 서부권의 경제 기반이 부실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불산단의 가동업체 270개사 중 운송장비와 기계 등 해양기자재가 전체의 73%인 198개사를 차지하지만 이번 ‘조선 경기 회복’ 효과를 보고 있는 업체는 10여 곳 안팎이며, 전남 서부권에 인력이 부족해 신규 인력의 상당수는 충청과 경기 등지의 교육기관에서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임동률 기자 kroh@kwangju.co.kr

손발 묶인 국회의원

기초·광역의원 선거 영향력 크게 줄어

기초단체장 선거도 역풍 맞을까 ‘내천’ 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을 창당하고, 기초선거 무공천까지 결정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광역의원(광주시·전남도의원) 공천마저 ‘창당’ 후폭풍에 따라 손을 놓고 있다.

광역의원 ‘경선 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당원 경선까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경선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을 통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경우 각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조직 장악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기존 민주당의 광역의원 경선은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100%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신당’ 창당으로 인해 당원 경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직 창당을 못한 새정치연합 측은 당원이 없기 때문에 당원 경선을 결사 반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기존 민주당 당원을 완전 배제한 100% 여론조사 또는 시

민 배심원제 등의 경선 방법이 도입될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새정치연합 측 입지자들이 민주당 측 입지자들 보다 많아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은 크게 발휘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당원 중심의 경선이 사라지면서 수그러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에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했던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조직을 통해 특정 후보를 밀어줄 수는 있겠지만, 후보들이 난립할 경우 ‘합’이 분산될 수 있는 점과 ‘내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우세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원 중심의 당내 경선은 지역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힘이 작용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새정치연합측에서 일부 선거구를 새정치연합 입지자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선거 못지 않게 광역의원 공천도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당, 기초 무공천 ... 비례대표는 어떡하나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기로 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 비례대표 후보 공천 여부 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기초선거 무공천은 결정했지만, 비례대표 부분에 대

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혼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례 후보에 나설 여성 입지자들의 혼란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탄생할 ‘통합 신당’이 기초 비례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여성 및 소수자 배려 몫으로 할

당되는 비례대표 당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지방의회 입성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은 기초 비례 공천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성 및 소수자 배

여성·장애인 지방의회 입성 불가

약속 이행·현실론 사이 갈팡질팡

려 차원에서 공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후보는 공천을 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가 당선되는 제도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새정치

연합 윤여준 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여성·장애인 몫”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이 즉각 ‘모순된 언행’이라며 비난하고 나서자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당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향후 ‘통합 신당’ 측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여부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휘 기쁜 남군 보람대 아니될씩 곳도코 여름 하느니

대광여고가 광주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2013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영수 보통학력이상 비율 광주 1위(98.7%)
- 2014학년도 서울대 총 6명 합격(최근 15년간 87명 합격)
(의예과 1명, 전기정보공학부 1명, 간호학과 2명, 식품영양학과 2명)
-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전국 의·치·한의예과 총 12명 합격
(의예과 7명, 치의예과 2명, 한의예과 3명)
- 2014학년도 대학입시 주요대학 및 학과 합격 현황
 - 연세대 4명, 고려대 11명, 이화여대 7명 총 22명 합격
 - 교육대 · 사범대 총 81명 합격(교육대 27명, 사범대 54명) - 간호학과 총 57명 합격
 - 전남대 165명 합격 - 조선대 152명 합격
- 사법시험 총 22명 합격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2번길 13
대광여자고등학교